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부모의 우울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Process analysis of poverty influencing on child abuse and neglect - Analyzing mediating effect of parent's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김광혁** · 김예성

전주대학교 사회복지전공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Kwang-Hyuk Kim · Ye-Sung Kim

Dept. of Social welfare, Junju University ·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Suwo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rocess through which poverty influences in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come from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2004-2005 and analysis method 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demonstrate that poverty has a direct influen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Also poverty influences through process variable such as depression of parent and family relationship. And depression of parent influences child abuse and neglect through family relation. Finding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societal support for poor families can prevent child abuse and neglect. Specially, such societal support need to be centered to low income family and family process.

Key Words : poverty, child abuse, neglect, depression, family relation

I. 서론

아동학대 및 방임은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이며, 또한 아동발달과 이후 성인기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사건이라 할 수 있다(김광혁, 2006; Knutson, 1995; English, 1998; Cynthia, 2002; Goldman et al, 2003). 이러한 아동학대의 큰 위험성으로 인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 아동 및 부모의 개인적 특성, 가족의 관계적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지역사회 환경적 특성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김재엽, 2001; 노충래,

2002; 안혜영, 김신정, 고주애, 2002; 이재연, 한지숙, 2003; 김혜영, 석말숙, 2003; 이경남, 2004; 김광혁, 2006; Belsky, 1980; Garbarino, 1977; Gelles, 1992; Knutson, 1995; English, 1998; Plotnik, 2000; Cynthia, 2002; Goldman et al, 2003; Berger & Brooks-Gunn, 2005). 특히 최근에는 가족빈곤이나 실업, 가족구조 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면서 빈곤층이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의 고 위험집단으로 인정되고 있다(김광혁, 2006; 이봉주, 김광혁, 2007; Gelles, 1992; Plotnik, 2000; Berger, 2004; 2005; Berger & Brooks-Gunn, 2005). 예를 들어, 빈곤가족의 경우, 비빈곤 가족에 비해 아동학대 및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아동학대

* 본 논문은 2005년도 선정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지원사업(과제번호 J09501)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200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Kwang-Hyuk Kim
Tel: 063) 220-3193, Fax: 063) 220-2051
E-mail: chrishyuk@jj.ac.kr

및 방임의 원인으로서는 가족빈곤의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이현주, 박소영, 2000; 이봉주, 김세원, 2005; 김광혁, 2006; 이봉주, 김광혁, 2007). 즉 이러한 관점은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특정계층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6)¹⁾.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빈곤과 아동학대의 관련성에 대한 서구의 연구들은 분석 자료, 빈곤의 정의, 그리고 정책 및 실천적 실용성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자료(CPS data, Child Protective Services data)를 활용함으로써 실제적인 아동학대 발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로 신고된 사례에 근거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실제적인 아동학대 사례보다는 신고될 확률이 높은 집단을 분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김광혁, 2006; 이봉주, 김세원, 2005; English, 1998; Cynthia, 2002).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학대의 신고가 상당 부분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공적 또는 사적 서비스 기관의 실무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빈곤층의 경우,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신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즉 실제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 및 방임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신고될 확률이 높았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빈곤층이 지나치게 과대 표집된 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고사례에 기초한 분석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분석결과가 아동학대 사례만의 특성인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가족빈곤과 아동학대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의 타당도나 신뢰도 등에 대한 의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English, 1998; Cynthia, 2002).

둘째, 가족빈곤과 아동학대 및 방임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빈곤의 정의 및 측정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빈곤의 정의를 가족의 실제적인 소득에 기초한 것이 아닌, 가구주의 직업적 지위나 실업, 한 부모 가족구조 등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대신하거나 공공부조 수급여부 등 소득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대리지표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지표들은 가족의 경제적 빈곤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라 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아동학대 및 방임과 가족빈곤의 관계에 대한 기

존의 선행연구들은 정책 및 실천적 활용도 측면에서도 한계를 갖고 있다. 가족빈곤과 아동학대 및 방임이 관련되어 있음을 검증하고 있으나, 빈곤가족의 어떠한 특성이 아동학대 및 방임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부재한 실정이다. 즉 '왜 빈곤한 가족에서 아동학대나 방임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에 대한 논의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족빈곤의 어떠한 특성이 어떠한 과정이나 경로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가족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위험요인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보고를 하고 있을 뿐 명확한 경로나 모형의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빈곤과 아동학대 발생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가족빈곤이 어떠한 작용을 통해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 관련성을 밝혀낼 수 있을 때,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다양한 예방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아동학대 및 방임의 원인을 밝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의 관계적 특성,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이러한 특성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가족과 정모델이나 생태체계이론 등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이 서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Belsky, 1980; Conger et al, 1992; Elder et al, 1985; Garbarino, 1977; Plotnik, 2000). 즉 아동학대 및 방임은 부모의 우울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원인, 가족관계와 같은 가족 구성원 간 관계적 차원의 원인, 그리고 가족빈곤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차원의 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요소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보다 실효성 있는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자료의 한계는 아동전문패널자료라 할 수 있는 서울아동패널(SCPS) 1-2차년도(2004년-2005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시 특정 자치구의 11개 초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1)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6년 3.36%, 2000년 7.68%, 2004년 8.79%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6).

해당 학교의 4학년 아동을 조사한 대규모의 조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조사 자료는 부모-자녀를 쌍체로 조사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가족 환경 및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또한 패널조사로서 종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학대 아동 및 비학대 아동과 빈곤아동 및 비빈곤아동을 모두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앞서 제기한 표집에서의 한계나 비교집단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빈곤의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측정을 위해 최근 대안적인 가족소득 측정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욕구대비소득비율(income-to-needs ratio)을 사용한다. 욕구대비소득비율은 가족의 규모와 가족 총소득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절대적 빈곤개념에 상대적 빈곤 개념을 가미한 대안적인 가족빈곤지표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 빈곤의 구체적인 영향의 특성과 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인 이론 모형으로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또는 가족스트레스모형(family stress model) 등을 적용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Elder et al, 1985; Conger, et al, 1994; English, 1998; Conger et al, 1992; NCANDS, 2002; Goldman et al, 2003). 먼저, 가족빈곤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인적자본이론이 있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곤란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투자나 관심의 저하는 아동에 대한 기대나 투자 회수의 기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즉 가족빈곤은 아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의 저하를 가져와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Becker & Tomes, 1986; Plotnik, 2000; Waldfogel, 2000; Berger, 2004; 2005; Berger & Brooks-Gunn, 2005). 또 다른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부모가 아동학대를 통해 특정한 효용(utility)을 얻고자 한다고 설명한다(Becker, 1991; Manser & Brown, 198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아동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선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한 형태가 경제적 또는 경제적 자원에 기초한 물질적인 동기 또는 보상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즉 재정적인 자원이 풍족한 가족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인 자원을 활용한 보상제공을 통해 부모가 바라는 방향으로 자녀의 행동과 사고를 유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빈곤한 가족의 부모는 아동의 선택에 대한 보상물로 활용할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하다. 이 경우, 빈곤한 가족의 부모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동의

바람직한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보상이 아닌 처벌, 즉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부모는 이를 통해 자신이 아동에게 바라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효용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러한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극심한 빈곤 상황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할수록 보다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김광혁, 2006; Gil, 1970; McLoyd, 1990).

가족빈곤이나 실업 등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를 설명하는 또 다른 관점은 가족스트레스 모형이다. 인적자본이론과 달리, 가족스트레스 모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가족과정을 강조한다. 가족이 빈곤에 처하게 될 경우,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제한된 자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정서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김광혁, 2006; Elder et al, 1985; Conger et al, 1992; Plotnik, 2000). 결국 빈곤으로 인해 시작된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정적 가족관계가 부정적인 양육행동, 즉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모형은 우리에게 아동학대 및 방임과 가족빈곤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적인 모형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예방적 개입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전문패널자료라 할 수 있는 서울아동패널(SCPS) 1-2차년도(2004년-2005년)자료를 활용하여 가족빈곤이 아동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경로모형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가족 빈곤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종속변수인 아동학대와 방임은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그리고 방임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들은 인적자본이론 및 가족과정모델에 기초하여 부모의 우울, 가족 관계 등을 제시하였고, 독립 및 매개, 종속변수들의 상호관계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족빈곤과 아동학대 및 방임의 구체적 영향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변수 간 구조 및 경로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분석모형인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족빈곤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가족빈곤은 부모의 우울 및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1. 가족빈곤은 부모의 우울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2. 가족빈곤은 부모의 우울을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3. 가족빈곤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빈곤의 직접 및 간접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은 서울아동패널(SCPS) 2004-2005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아동패널은 2004년부터 서울시 특정 자치구의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확률표집을 통해 선정한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panel survey)이다. 서울아동패널은 1차년도인 2004년부터 2차년도인 2005년까지 9개 초등학교의 4학년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첫 해 조사(4학년)인 2004년에는 1785사례가 조사되었고, 아동이 5학년이 된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사례를 기준으로 92.94%가 조사되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교실에서 행하는 집단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을 통해 전달된 설문지에 부모가 자기기입(self-report)하고 밀봉하여 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아동패널에서는 학업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비행, 건강 등 아동의 다양한 발달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소득 등 기본적인 가족배경 변수는 물론 가족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환경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5.0과 AMOS 7.0을 활용하여 연구

문제를 분석한다. 주요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은 SPSS 15.0을 이용하였고, 본 분석이라 할 수 있는 측정모형 및 구조방정식 모형(기본모형 및 연구모형)은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결측치를 고려한 모수추정방법인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부모우울과 부부관계, 아동학대 변수는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통해 하위개념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지표화하였다(조현철, 2003).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구조방정식모형의 일반적인 2단계 접근법에 따르면, 부모우울과 가족관계, 아동학대 개념 등 모형의 측정변인들이 이론적 개념(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모형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후 분석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된 연구모형의 최적 모형 산출을 위해 모형별 χ^2 값을 비교하여 수정모형을 산출한 후,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과 매개변수들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산출한다.

3. 주요변수의 정의 및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이론 및 가족과정모형 등의 가설적 경로모형에 기초하여 가족빈곤변수가 독립변수로, 아동학대 및 방임 변수가 종속변수로, 그리고 부모우울, 가족관계 등이 매개변수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아동의 성, 형제순서, 부모의 학력, 가족구조 등의 변수를 통제 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이다. 이상의 종속변수들은 서울아동패널의 2차년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이 보고하도록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신체적 학대는 “부모님이 나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부모님이 주위의 물건(재떨이, 그릇, 의자)을 던져서 내가 맞았다”,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았다”,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송곳, 못, 도끼 등)로 나를 찔렀다” 등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정서적 학대는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등 3문항으로 측정되었

다. 그리고 방임은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숨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잠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부모님은 내가 볼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채 한다”, “부모님은 내가 불량 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한다” 등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문항들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더한 점수를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경우,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학대의 발생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각각 .67과 .69, 그리고 .52로 나타나 실제 분석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평균은 각각 5.44, 3.85, 4.09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가족빈곤이다. 가족빈곤은 서울아동패널에서 보고하고 있는 월평균 가족소득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계산되는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로 환산한 후, 욕구소득비 1미만을 빈곤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살려 2년 연속 가족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 가구로 정의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비빈곤 가족에 0의 값을, 빈곤 가족에 1의 값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가족빈곤은 전체의 4.9%가 2개년 모두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부모의 우울, 가족관계이다. 가족빈곤과 아동학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Elder et al, 1985; Conger et al, 1994; Conger et al, 1992)에서는 가족 빈곤이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를 가져와 우울과 같은 부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정적 가족관계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즉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우울, 가족관계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먼저, 부모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우울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부모의 우울 측정은 SCL-90 우울 관련 8문항이 사용되었다. 부모의 우울 문항은 설문지에 응답한 부모 또는 모의 우울을 말하며, 2차 년도에 측정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외롭다” 등 8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항상 그렇다(4점)’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말하며, 신뢰도는 .90이었고, 부모 우울 평균은 11.99점이었다. 실제분석에서 우울문항은 각 항목들을 무작위적으로 3등분으로 나눠서 합산한 점수를 산출하여 지표로 사용하였다.

또한 가족관계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보살핀다”, “우리 가족에게는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의 3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표 1> 주요변수의 정의 및 기술 통계치

변수(변수명)	변수정의	평균 (표준편차)
신체학대	신체학대 5문항, $\alpha=.67$	5.44(1.31)
정서학대	정서학대 3문항의 합, $\alpha=.69$	3.85(1.79)
방임	방임 4문항의 합, $\alpha=.52$	4.09 (.59)
가족빈곤 (%)	1, 2차년 연속 가족 빈곤 여부 (비빈곤=0),	4.9
부모 우울	부모의 우울 8문항의 합,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심함, $\alpha=.90$	11.99(3.80)
가족관계	가족관계 3문항의 합,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alpha=.69$	8.48 (.96)
가족구조 (%)	한 부모 가족 양친부모 가족 (=0)	3.7 96.3
부모 교육수준 (%)	대학입학(전문대 포함) 이상 고졸 이하 (=0)	41.9 58.1
아동의 성 (%)	여성 남성 (=0)	48.0 52.0
형제 순서 (%)	말이 여부 말이 아님 (=0)	47.0 53.0

*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부모우울, 가족관계 변수는 2차 년도에 측정된 문항임.

‘그런 편이다(3점)’, ‘항상 그렇다(4점)’과 같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역시 가족관계는 2차 년도에 조사된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역 점수 문항은 재코딩(recoding)을 통해 응답의 방향을 다른 문항과 일치시켰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말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69, 평균은 8.48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족 구조는 한 부모 가족(1)과 양 친부모가족(0)으로 1차년도 기점으로 측정되었다. 가족구조의 경우는 약 3.7%가 한 부모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은 전체 부모의 약 42%가 대학입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0)과 대학(전문대 포함) 입학 이상(1)으로 2분화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입 이상이 41.9%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성은 여성(1), 남성(0)으로 변수화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아동이 48.0%로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형제순서(말이 여부)변수는 부모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변수로 말(1), 말이가 아닐 경우(0)로 변수화하였다. 분석결과 말이인 경우가 47%로 나타났다.

4.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 모형을 요약해보면,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 영향 외에 부모의 우울 정도, 가족관계를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이 존재할 것이란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가설적인 경로는 첫째,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경로의 매개변수로서 부모의 우울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가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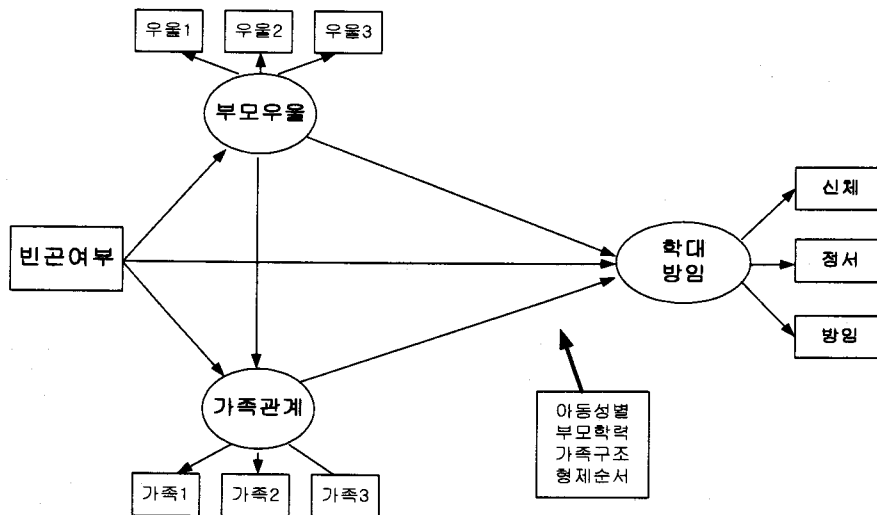
경제적 어려움을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을 가족관계 변수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즉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관계의 악화를 가져와 아동학대 및 방임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부모우울과 가족관계 등 매개변수들의 결합에 기초한 것이다. 먼저, 부모의 우울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족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로를 구성하였다.

이 밖에 본 연구문제 및 분석 모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아동의 성, 형제 순서와 가족구조, 부모의 학력 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김재엽, 2001; 김혜영, 석말숙, 2003; Cicchetti and Aber, 1980; English, 1998; Cynthia, 2002). 이러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 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인 χ^2 (Chi-square)통계량, CFI(Comparative Fit Index), 증분적합 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인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으로 검증한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모형

구조방정식 모형 2단계 분석의 1단계로서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모형의 측정변인들이 이론적 개념(잠재



[그림 1]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변인)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부모우울, 가족관계, 아동학대 및 방임의 측정모형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측정모형 분석에서 부모우울과 가족관계는 실제 관측된 문항들을 지표로 사용하였고, 아동학대 및 방임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하위 개념 별로 구성 문항을 합한 값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잠재변수의 관측 변수들 중에서 요인 적재량이 가장 큰 변수를 준거지표로 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요인 적재량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49.808(df=22)$, $p=.000$ 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만, χ^2 값이 자료의 크기에 비례하여 커지는 속성을 고려할 때,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NFI=.991, CFI=.995, RMSEA=.027로 모형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잠재변인들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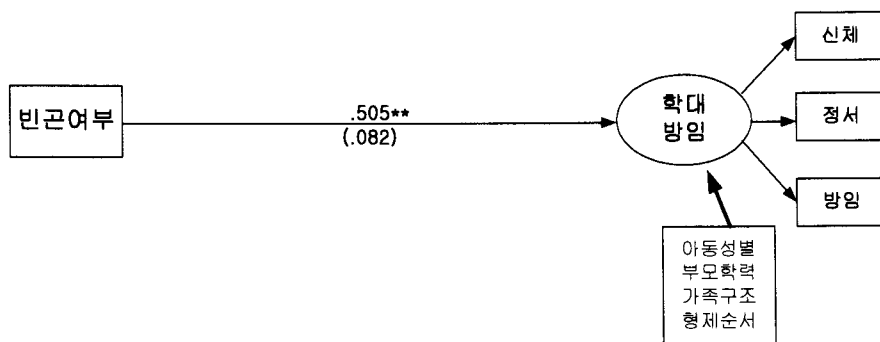
2. 기본 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분석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사전 분석으로 과정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가족빈곤과 아동학대 및 방임의 기본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정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가족빈곤 및 통제변수와 아동학대 및 방임 모형을 분석한 결과, 가족빈곤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가족이 빈곤할수록 빈곤하지 않은 가족에 비해 아동학대 및 방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과정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족빈곤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역시, 유의미하였다.

<표 2>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우울1 ← 부모우울	.800	.823	42.567***
우울2 ← 부모우울	1.000	.902	-
우울3 ← 부모우울	.733	.871	46.078***
가족1 ← 가족관계	.844	.613	13.791***
가족2 ← 가족관계	1.000	.632	-
가족3 ← 가족관계	.804	.569	12.999***
신체적 학대 ← 학대 및 방임	.740	.777	15.447***
정서적 학대 ← 학대 및 방임	.504	.428	14.043***
방임 ← 학대 및 방임	1.000	.776	-

*** $p<.001$, $\chi^2=49.808$ ***($df=22$), NFI=.991, CFI=.995, RMSEA=.027



*** $p<.001$, $\chi^2=104.864$ ***($df=17$), NFI=.913, CFI=.925, RMSEA=.054

()안의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

[그림 2]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3. 구조방정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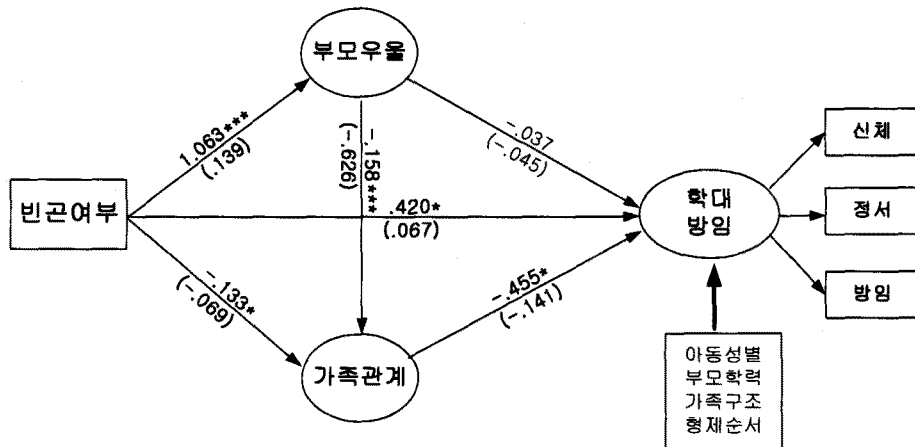
본 연구의 본 분석이라 할 수 있으며, 구조방정식의 2 단계 분석인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은 매개변수가 포함된 이후에도 계수와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빈곤은 '부모우울 > 가족관계' 또는 '가족관계'의 경로를 통해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우울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가족빈곤 여부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06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이 빈곤할 경우, 빈곤하지 않은 가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매개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의 간접적인 영향은 가족빈곤 > 부모우울(.139) > 가족관계(-.626) > 아동학대 및 방임(-.141)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빈곤할수록 부모의 우울 정도가 높고, 가족관계가 부정적이며, 이로 인해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이 부

정적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유발시킨다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의 다른 경로는 가족빈곤 > 가족관계(-.069) > 아동학대 및 방임(-.141)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가족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의 관계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유발시킨다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빈곤의 영향을 받은 부모우울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족관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224.288(df=66)$, $p=.000$, $NFI=.961$, $CFI=.972$, $RMSEA=.037$ 로 나타나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수정모형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부모의 우울 정도가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 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높인 최적의 영향 경로 및 구조모형을 찾기 위



*p<.05, **p<.01, ***p<.001, $\chi^2=224.288$ (df=66), NFI=.961, CFI=.972, RMSEA=.037, ()안의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

[그림 3]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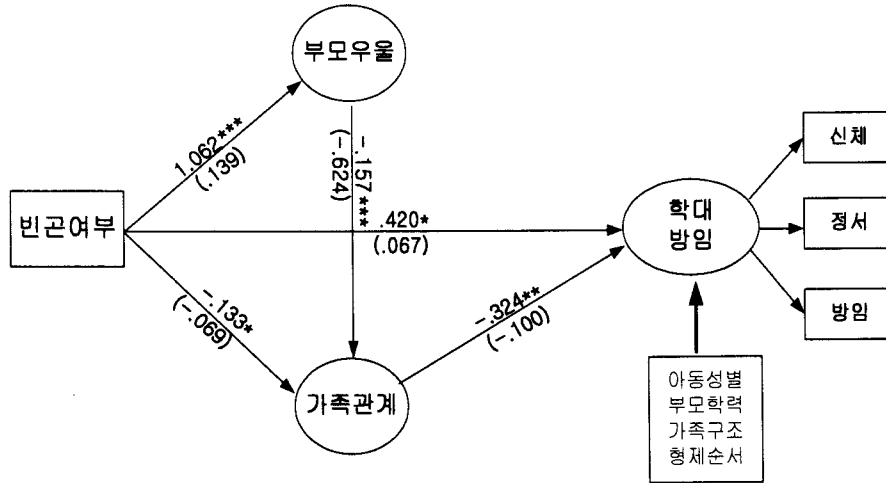
<표 3>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의 모형 적합도

모형	경로	χ^2 (df)	$\Delta\chi^2$ (Δ df)
A.	연구모형	224.288 (df=66)	-
B.	부모우울→아동학대 및 방임 제거 모형	225.228 (df=67)	.094(1)

해 모형다듬기(model trimming)²⁾을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경로를 연구모형에서 제거하여 연구모형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모 우울과 아동학대 및 방임 변수 간의 영향 경로를 제거했을 때, 카이제곱 통계량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연구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으며, 전체적인 경로계수들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로 나타났던, 해당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가장 간명한 모형이 도출되었다.

수정모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그림 4]에 제시되었다. 최종모형에서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p<.05, **p<.01, ***p<.001, $\chi^2=225.228^{***}(df=67)$, NFI=.961, CFI=.972, RMSEA=.036, ()안의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

[그림 4] 수정모형

<표 4>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연구모형			수정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임계비율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임계비율
가족빈곤 → 학대와 방임	.420	.067	2.243*	.420	.067	2.246*
가족빈곤 → 부모우울	1.063	.139	5.141***	1.062	.139	5.137***
가족빈곤 → 가족관계	-.133	-.069	-2.265*	-.133	-.069	-2.271*
부모우울 → 가족관계	-.158	-.626	-16.156***	-.157	-.624	-16.105***
부모우울 → 학대와 방임	-.037	-.045	-.965	-	-	-
가족관계 → 학대와 방임	-.455	-.141	-2.552*	-.324	-.100	-2.880**
가족구조 → 학대와 방임	.540	.076	2.668**	.520	.073	2.586*
가족구조 ↔ 가족빈곤	.007	.175	6.764***	.007	.175	6.764***
가족구조 → 부모우울	.878	.100	3.864***	.878	.100	3.863***
가족구조 → 가족관계	.038	.020	.699	.037	.020	.693
아동 성 → 학대와 방임	.332	-.123	-4.429***	-.337	-.125	-4.484***
부모교육 → 학대와 방임	.004	.001	.054	.004	.002	.056
부모교육 ↔ 가족빈곤	-.010	-.090	-3.531***	-.010	-.090	-3.532***
형제순서 → 학대와 방임	.241	.089	2.235**	.239	.088	2.201**

*p<.05, **p<.01, ***p<.001

2) 모형다듬기란 초기 모형을 검증한 후, 변수들 사이에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간명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확보하였다. 수정모형을 연구모형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계수들과 통계적 유의미성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225.228^{***}(df=67)$, NFI=.961, CFI=.972, RMSEA=.036로 나타나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 빈곤의 영향의 총합은 .083이며, 직접효과 .067, 간접효과 .016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은 부모우울과 부부관계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밖에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된 한 부모 가족구조, 아동 성, 형제 순서 등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친부모 가족보다 한 부모 가족일수록, 여성보다는 남성 아동일수록, 그리고 아동이 만이 일수록 아동학대 및 방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부모 가족구조와 가족 빈곤은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수준 및 가족빈곤 역시, 유의미한 상호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동학대 및 방임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5. 효과의 분해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가족빈곤과 아동학대 및 방임, 그리고 경로변수들의 영향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는 최종(수정)모형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하여 보여주고 있다. 가족빈곤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존재하였다.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친 총 효과는 약 .083이었고, 이 중에서 직접효과는 약 .067, 간접효과는 약 .016으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분해된 효과에 기초하여 가족 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의 2가지 경로로 요약될 수 있다.

[경로 1] 가족빈곤 → 부모우울 → 가족관계 → 아동학대 및 방임

[경로 1]의 경우, 가족빈곤은 부모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139), 부모의 우울은 부부 또는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켜(-.624), 아동학대 및 방임을 증가시킨다(-.100). 따라서 [경로 1]을 통해 설명되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의 간접효과는 약 .009(.139×-.624×-.100)이다.

[경로 2] 가족빈곤 → 가족관계 → 아동학대 및 방임

[경로 2]의 경우, 가족빈곤은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고(-.069), 부정적 가족관계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증가시킨다(-.100). 따라서 [경로 2]를 통해 설명되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의 간접효과는 약 .007(-.069×-.100)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 모형 중에서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영향 경로는 [경로 1]이 상대적으로 주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빈곤이 아동 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빈곤은 아동학대 및 방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의 우울, 가족관계를 통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빈곤은 아동학대와 방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인적자본이론을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 Tomes, 1986; Plotnik, 2000; Waldfogel, 2000; Berger, 2004; 2005; Berger & Brooks-Gunn, 2005). 특히 가족빈곤은 부모의 우울이나 가족관계 등을 통해 아

<표 5> 최종모형 경로계수의 효과분해: 표준화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가족 빈곤 → 아동학대 및 방임	.067	.016	.083
가족 빈곤 → 부모 우울	.139	-	.139
가족 빈곤 → 가족관계	-.069	-.087	-.156
부모우울 → 아동학대 및 방임	-	.063	.063
부모우울 → 가족관계	-.624	-	-.624
가족관계 → 아동학대 및 방임	-.100	-	-.100

* 이상의 결과는 표준화계수에 기초하였음

동학대 및 방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의 간접적 영향을 설명한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비롯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lder et al, 1985; Conger et al, 1994; English, 1998; Conger et al, 1992; NCANDS, 2002; Goldman et al, 2003).

그러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은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을 어떻게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개변수들 외에도 다른 매개변수들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매개변수들의 작용 및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가족빈곤의 영향을 받은 부모의 우울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정서적 스트레스나 정신건강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로 밝혀 왔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및 방임의 원인이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 관계적 특성 등이 개별적인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관계 속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적 개입 역시, 개별적인 요소보다는 복합적 요소들에 대한 포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방법론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빈곤이 어떠한 경로나 구조 속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으로 연결되는가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모형으로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이 분야 연구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가족 빈곤과 아동학대 및 방임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나 가족빈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명확한 모형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적인 수준이지만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친 영향 경로를 밝힌 본 연구는 이 분야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온 아동학대 및 방임의 원인으로 개인적 차원의 문제나 가족의 관계적 특성이 가족빈곤에서 파생되어 복합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밝힌 부분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포괄적인 발생 구조를 보다 구체화하고, 분명히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분야 중의 하나인 정서적 학대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서적 학대 역시, 가족빈곤 및 여러 매개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나 방임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며, 정서적 학대는 상대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 역시,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를 밝힘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의 다양화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빈곤이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검증되면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소득지원 외에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지원이나 양육행동에 대한 지원이 또 다른 예방적 개입의 지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부모의 정서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저소득층 부모를 중심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바른 아동양육을 유인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양육 지원 프로그램 역시, 가족빈곤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개입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의 다양화 또는 포괄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확률표집을 통해 조사된 대규모 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빈곤과 아동학대의 포괄적인 관계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신고된 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단순한 변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면, 본 연구는 일반 아동이 포함된 대규모 자료에 기초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비학대 아동 또는 비빈곤 아동과 학대 및 빈곤 아동의 특성과 관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아동과 부모를 동시에 쌍체로 조사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한 분석을 하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가족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아동 또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조사한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이루어져 보다 객관적인 가족 특성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

여 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구조 및 경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경로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함의나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던 대규모의 부모-자녀 쌍체 표집 조사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한 모형에서 분석함으로써 가족빈곤과 아동학대 및 방임의 관계 구조를 밝히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변수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보다 다양한 매개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매개변수들의 영향은 과대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습관이나 부부간 학대, 건강, 지역사회 환경 등 포괄적인 매개변수들을 고려한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가족빈곤 및 아동학대의 관계 및 그 영향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던 2개년에 거친 종단적인 패널자료를 사용하였고, 확률 표집된 대규모의 아동전문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추후에 패널 조사 자료의 장기적인 추적과 함께 가족빈곤과 아동학대 및 방임의 포괄적인 인과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종단적인 아동 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에 국한된 조사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분석결과가 지역 또는 도농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 등 아동학대의 세부 유형들이 동시에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반영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구성하였으나 학대의 세부 유형별로 다른 특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학대의 세부 유형별 모형의 구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빈곤, 아동학대, 방임, 우울, 가족관계

참 고 문 헌

- 김광혁(2006).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5, 53-74.
- 김재엽(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연세사회복지연구*, 6-7, 1-32.
- 김혜영, 석달숙(2003).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개인특성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71-97.
- 노충래(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 노혜련(1992). 아동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문화적 배경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19, 113-137.
-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6).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2006*.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안혜영, 김신정, 고주애(2002). 고위험집단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 32(6), 775-783.
- 연진영(1992). 아동학대 실태와 관련변인. *가정문화연구*, 9, 93-122.
- 이경남(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1-11.
- 이봉주, 김광혁(2007).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1(3), 333-359.
- 이봉주, 김세원(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9(3), 347-373.
- 이재연, 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 이원두, 윤용진, 이승규, 김용호, 서영성, 김대현, 신동학(1997). 가정내 아동구타 발생과 관련된 요인. *가정학회지*, 18(12), 1436-1451.
- 이현주·박소영(2000). 경제위기가 저소득 가구의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건사회연구*, 20(1), 64-85
- Baumrind, D. (1994). The social context of child maltreatment. *Family Relations* 43(4), 360-368.
-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39.
- Belsky, J. (1980). Child maltreatment: An soci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4), 320-335.
- Berger, L. M. (2004). Income, family structure, and child maltreatment risk.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 26, 725-748.
- Berger, L. M. (2005). Income, family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violence towar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9, 107-133.
- Berger, L. M. & Brooks-Gunn. (2005).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knowledge and behaviors, and perceived maltreatment of young low-birth-weight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June, 237-267.
- Cicchetti, D. & Aber, J. L. (1980). Abused children abusive parents: An overstated case?.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 244-255.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D., X. Ge, G.H. Elder, Jr., F.O. Lorenz and R.L. Simons.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61.
- Cynthia, C. T. (2002).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Boston: Allyn and Bacon.
- Elder, G. H, Nguyen, T. V. & Caspi, A. (1985). Resourceful and vulnerable children: Family influence in hard times. In R. K. Silvereisen, k. Eyferth, & G. Rudinger(Ed.), *Development as actin in contest*, 167-186, New York: Springer-verlag.
- Egeland, B., Jacobvita, D., & Sroufe, L. A., (1988). Breaking the cycle of abuse. *Child Development*, 59, 1080-1088.
- English, D. (1998).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The Future of Children*, 8(1), 39-53.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NASW Press.
- Garbarino, J. (1977).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conceptual model for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4), 721-735.
- Gelles, R J. (1992). Poverty and violence toward childre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3), 258-274.
- Gil, D. (1970). *Violence against childre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man, J., Salus, M.K., Wolcott, D., & Kennedy, K. Y. (2003). A coordinate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neglect: The foundation for practi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Knutson J. K. (199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treated children: Punitiv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401-431.
- Manser, M., & Brown, M. (1980). Marriage and household decision-making: A bargaining analysi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1(1), 31-44.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NCANDS. (2002).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summary of key findings for calendar year 2000. Washington.
- Plotnik, R. D. (2000). Economic security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 P. J. Pecora, J. K. Whittaker, A. N. Maluccio, & R. P. Barth(Ed.),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pp. 95-127).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Waldfogel, J. (2000). What we know and don't know about the state of the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 and about the links between poverty and child maltreatment. Remarks for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 Congressional Research Briefing on "Child Welfare and Child Protection: Current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Washington, D.C.

(2008. 7. 27 접수; 2008. 10. 18 채택)